

#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이후 여론 변화, 법원 판결이 사실 인식 왜곡〉

- ‘골프 발언’ 판결 이후,  
대중의 사실 인식 변화에 대한 AI 기반 댓글 분석 -

---

2025년 4월 14일 (월)

---



#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이후 여론 변화, 법원 판결이 사실 인식 왜곡”

- ‘골프 발언’ 판결 이후, 사실 인식 변화에 대한 AI 기반 댓글 분석 -

여의도연구원 전유원, 옥승철

2025.4.1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1심 유죄, 2심 무죄)이 여론의 사실 인식에 미친 영향을 AI 기반 온라인 댓글 분석을 통해 도출함
  - 1심 유죄 판결은 ‘골프쳤다’라는 1심 이전의 기존 인식과 부합하는 결과
  - 반면, 2심 무죄 판결 이후에는 ‘안 쳤다’는 응답이 우위를 차지하며, ‘골프쳤다’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인식이 여론 전반에 확산됨
  - 이에 대중의 ‘사실 인식 왜곡’이 발생, 또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혼란’을 표출하는 여론이 급증
- 향후 대법원 최종판결(3심)은 여론의 혼란을 해소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법원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대중의 사실 인식을 형성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

## 1. 분석 배경 및 목적

- 본 보고서는 ‘이재명 대표 골프 발언’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여론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고(故) 김문기 처장과의 골프 회동 여부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중심으로, 법원 판결과 그에 따른 여론의 변화를 분석함
  - 해당 사안은 법원의 판결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임
    - 이재명 대표가 고(故) 김문기 처장 등과 실제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은 영상, 일정, 증언 등을 통해 1심에서 입증된 객관적 사실임
    - 해당 발언(“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sup>1)</sup>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함
  - (1심 유죄<sup>①</sup>) ‘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 등을 고려할 때, 골프 발언이 이재명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중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해석, 해당 발언을 ‘허위’로 유죄 판단
- ※ ①에 대한 자세한 판결내용은 3페이지 [표1]을 참조

1) (발언 내용)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 2021년 12월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

⇨ (전통적인 허위사실 판단 기준\* 적용)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표현의 전체적 취지와 객관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유권자에게 전달 되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전통적 해석 기준을 적용해옴

**\* 대법원이 제시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판단 기준**

- “허위사실이라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 대법원 2007.8.24. 선고 2007도 4294 판결,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도 5279 판결 등 다수
-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이견<sup>2)</sup>

- (2심 무죄<sup>②</sup>) 해당 발언이 ‘사진 조작을 지적한 의견표명으로도 해석 가능’하며, ‘다른 해석 여지가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무죄추정 원칙에 기반하여 무죄를 선고

※ ②에 대한 자세한 판결내용은 3페이지 [표1]을 참조

⇨ 해당 판결은 1심과 달리,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도 다른 해석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 하는 것과 함께 유·무죄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판단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강조된 판단<sup>3)</sup>

-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표현이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의 공표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2) 차진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의 의미와 기능 - 대법원 2020.7.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제103호, 2021.

3) 이재명 2심 재판부, 5년 전 대법 판결 인용해 '표현의 자유' 강조, 2025년 3월 26일, **중앙일보**,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3774>

[표 1] 이재명 골프발언 및 판결 내용

<p>① 1심 판결 (유죄)</p>	<p>“선거인 입장에서는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을 사진과 함께 제기된 의혹이 조작됐다는 것, 즉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이 대표는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쳤으므로 이 골프 발언은 허위사실”<sup>4)</sup></p>
<p>② 2심 판결 (무죄)</p>	<p>“해외 출장 중 골프를 쳤는지 여부에 대해 발언한 적은 없으며, 관련 사진도 원본에서 일부만 떼 낸 것으로, 조작됐으므로 골프를 같이 친 게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검사의 주장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자의적으로 해석된 발언에 대해 다른 합리적 해석 없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해석만 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에 반하고, 의심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sup>5)</sup></p>

□ 1심과 2심의 ‘상반된 법원 판결’이 여론의 사실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하는 것이 목적임

- 해당 발언을 둘러싼 시기별 여론의 흐름을 댓글 데이터를 통해 추적 분석함
- 이를 통해 상반된 판결이 유권자 인식에 끼친 변화를 관찰함

2. 분석 대상 및 방법

- (분석 시기) 세 시기로 분류
  - 1심 판결 이전 : 2021년 10월 20일 ~ 2024년 11월 14일
  - 1심 판결 직후 : 2024년 11월 15일 ~ 2025년 3월 25일
  - 2심 판결 직후 : 2025년 3월 26일 ~ 4월 2일
- (분석 대상) ‘이재명’과 ‘골프’ 키워드가 포함된 네이버/다음 뉴스 기사 197건의 댓글 총 126,391개
  - 1심 이전(2,250개), 2심 이후(1,053개), 2심 이후(1,514개)
  - ※ 댓글 126,391개 중에 문맥상 ‘골프쳤다’, ‘안 쳤다’ 판별 가능한 댓글 세부 분류
  - 댓글은 다음 세가지 범주로 분류
    - ① 골프쳤다 ② 안 쳤다 ③ 모르겠다(판단 유보, 혼란)
- (분석 방법) LLM(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자연어처리(NLP) 기법을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한 대중 여론의 시기별 변화 비교·분석

4) “김문기와 골프 사진? 조작됐다” 이재명 이 말, 이재명 발목 잡았다 [이재명 판결문 분석], 중앙일보, 2024년 11월 16일,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2470>

5) “의견표명이므로 허위사실공표 아니다”... 이재명 골프·백현동 발언 판단 모두 뒤집혀, 법률신문, 2025년 3월 26일, 출처: <https://www.lawtimes.co.kr/news/206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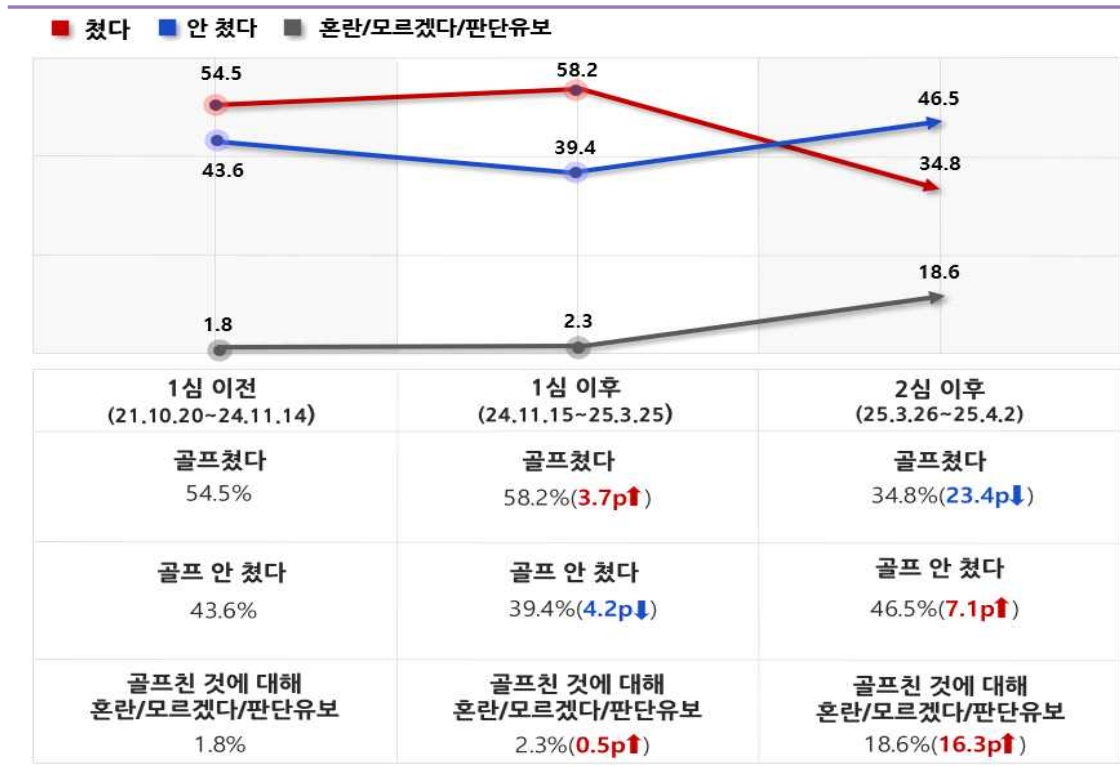
### 3. 분석 결과

□ 1심 이전부터 ‘골프쳤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판결 이후에도 유지되었으나, 2심 무죄 판결로 인해 사실 인식에 ‘왜곡’과 ‘혼란’이 발생함

○ 1심 판결은 ‘골프쳤다’는 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며 당시 여론의 인식과도 부합하는 결과

- 1심 판결 전후 모두 ‘골프쳤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기며 다소 우세한 여론이 형성됨
- 유죄 판결 이후에도 ‘쳤다’, ‘안 쳤다’ 비율에 소폭 변화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여론 분위기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됨
- 판단을 유보하거나 혼란을 표한 응답은 비율은 2% 내외로 극소수에 불과

[그림1] 시기별 온라인 여론의 '이재명 골프 발언' 관련 변화



○ 2심 판결 이후 여론이 객관적 사실과 달리 형성되며 ‘사실 인식의 왜곡’이 나타남

- 2심 무죄 판결 이후 ‘골프 안 쳤다’(46.5%)가 처음으로 ‘골프쳤다’(34.8%)를 ‘역전’함
- 골프를 친 정황과 관련 사진 등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사실과 다른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이는 법원 판결이 여론의 현실 인식에 영향을 미쳐 왜곡을 유발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음

○ 또한, ‘혼란’과 ‘판단 유보’를 표출하는 여론이 크게 증가함

- 무죄 판결 이후 ‘골프쳤다’는 응답은 23.4p 감소하며, 기존의 다수 의견이 약화됨
- 동시에 판단을 유보하거나 혼란을 드러낸 응답은 16.3p 증가하여, 이전 대비 8배 이상 급증함
- 이러한 변화는 여론이 객관적 사실보다 판결 결과에 더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며, 판결에 따라 사실을 다르게 인식하면서 오히려 혼란이 심화되고 있음을 드러냄

[표 2] 여론 분석 결과 요약

구분	주요 여론 흐름	댓글 경향	판단 유보 경향
① 1심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프했다가 다수 의견</li> <li>- ‘골프했다’(54.51%)</li> <li>- ‘안 쳤다’(43.6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혹을 전제한 비판 다수</li> <li>- “사진까지 있는데 왜 부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단 유보 낮음</li> <li>- 판단 유보(1.8%)</li> </ul>
② 1심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프했다는 다수 의견 유지</li> <li>- ‘골프했다’(58.23%)</li> <li>- ‘안 쳤다’(39.4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죄 판결 수용하는 반응 우세</li> <li>- “당연한 결과다”</li> <li>“법원이 판단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단 유보 낮게 유지</li> <li>- 판단 유보(2.35%)</li> </ul>
③ 2심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프 안 쳤다는 의견 증가</li> <li>- ‘골프했다’(34.845%) 급감</li> <li>- ‘안 쳤다’(46.51%)가 역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李大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믿는 사실 인식 왜곡 증가</li> <li>• 무죄 판결에 혼란스러워하는 댓글 증가</li> <li>- “사진 조작이라더니 골프를 안 쳤네”</li> <li>“진실이 뭔지 모르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단 유보 급증</li> <li>- 18.65%로 8배 증가</li> </ul>

○ 댓글에 따르면, 여론은 증거 기반의 사실 인식 및 확신에서 출발해 1심 유죄 판결을 수용하는 반응을 보였으나, 2심 무죄 판결 이후에는 사실 왜곡 인식과 함께 혼란이 확산됨

- (1심 이전) “사진까지 있는데 왜 부인하냐”는 식의, 시각적 증거를 근거로 한 ‘사실 기반의 확신형’ 반응이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남
- (1심 유죄 판결 이후)에는 “법원이 판단했으니 사실이 맞겠지”라는 식의, 사법 판단을 수용하는 ‘권위 순응형’ 반응이 확산됨
- (2심 무죄 판결 이후)에는 “그럼 골프 안 쳤나 보네”, “진실이 뭔지 모르겠다”는 식의 혼란이 확산되고, 1심에서 입증된 ‘골프했다’는 사실과 다른 인식이 퍼지면서, 여론은 기존의 흐름에서 벗어나 사실 왜곡과 불확실성이 뒤섞인 양상이 됨

#### 4. 시사점

- 동일한 사안에 대한 상반된 법원의 판결로 사실 인식의 왜곡이 발생하고 여론의 혼란이 야기됨
  - 2심 무죄 판결은 1심 판단을 뒤집으며, 사실 인식의 왜곡이 여론의 주된 흐름으로 바뀌는 계기가 됨
  - 2심 판결이 대중의 사실 인식과 괴리되면서 공론장의 혼란과 기능 저하가 발생함
    - 판단을 유보하거나 혼란을 드러내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공론장의 방향성이 흐려지고 사실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과 건전한 논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야기됨
  
- 이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법적 효과를 넘어 그 자체로 대중의 사실 인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됨
  -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법원의 해석이 대중의 인식과 다를 경우 여론은 일관되지 않게 반응함
  - 법원 판결은 개인의 사실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우에 따라 사실 왜곡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향후 대법원 최종판결(3심)은 여론의 혼란을 해소하거나 악화시킬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대법원 판결은 사실에 대한 최종 판단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법원이 여론이 형성해 온 인식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이를 신뢰하는 효과가 있고 사실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
    - 이번 사건에서 여론의 혼란은 단순한 1·2심 판결의 불일치 때문이 아니라, 대중이 인식해온 사실과 2심 판결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됨
    - 1심 유죄 판결은 대중 인식과 부합해 여론 구조의 유의미한 변화 없이 기존 인식을 유지하게 했으나, 2심 무죄 판결은 그 인식과 어긋나면서 사실 인식의 혼란을 가중시킴